

# 주제: 항공사 운행 실태 조사

김찬호

## - 문제 인식

항공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좌석 활용도를 극대화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월별, 항공사별, 노선별 이용률에는 차이가 있고, 일부 항공사는 좌석이 많이 남거나, 특정 시기에 이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 아이디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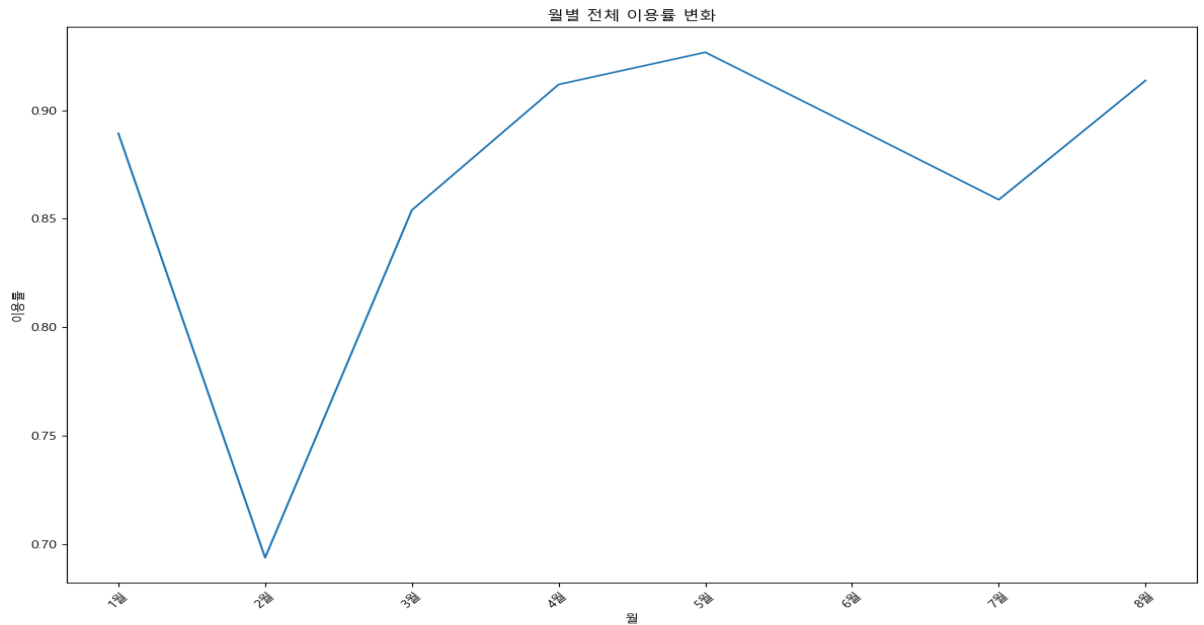
- 월별 이용률 변화 분석
- 항공사별 및 노선별 이용률 최적화
- 좌석 활용도 최적화
-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 - 데이터 현황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노선 여객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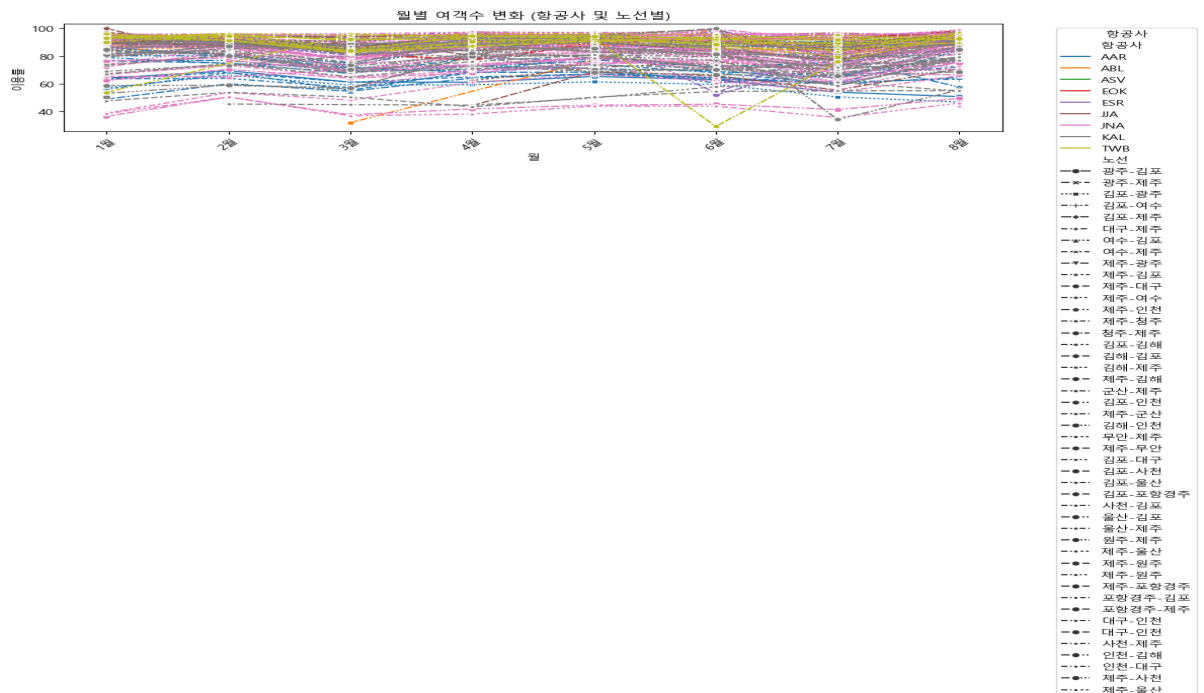
## - 분석 과정 및 시각화

1. 어느 달이 가장 이용률이 낮고 높은지



2월이 70프로 부근으로 가장 떨어지고 5월이 92프로 정도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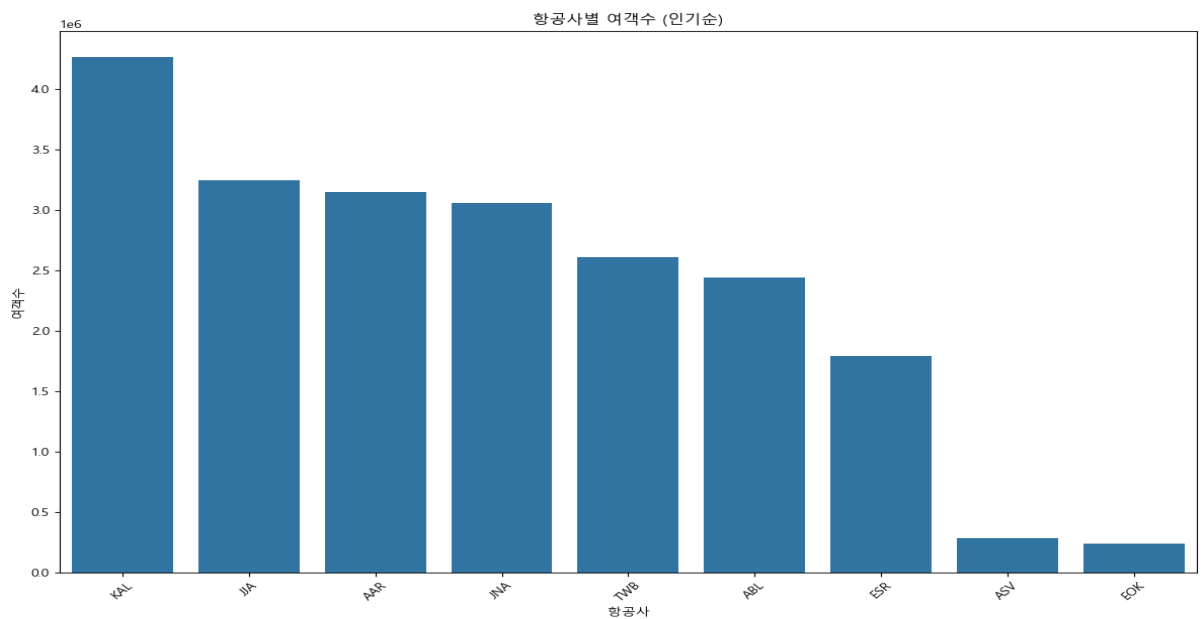
## 2. 항공사, 노선, 월로 나뉘었을 때 정확히 어디가 이용률이 높고 낮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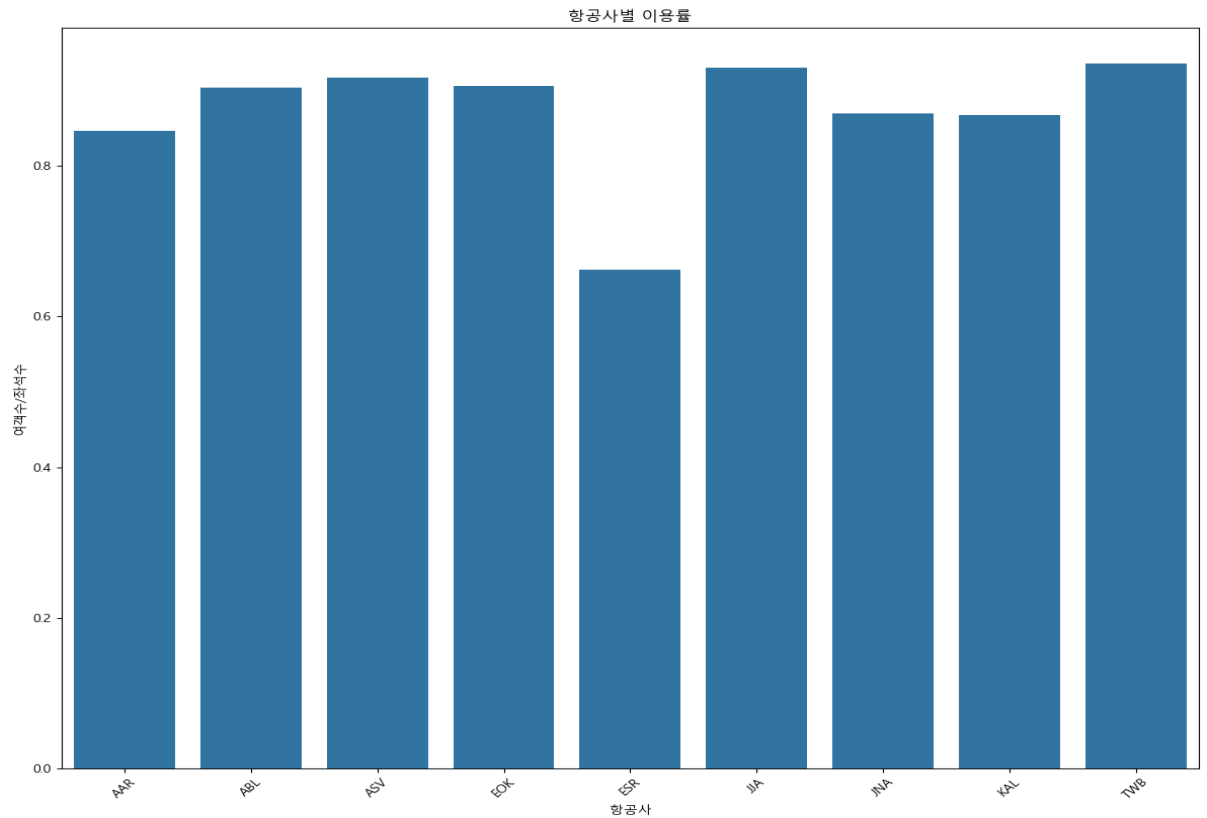
그림으로는 해석이 힘들었지만 데이터프레임에서 봤을 때

항공사 ABL,JJA,KAL,JNA,JJA,AAR제주-인천 노선이 6월,1월에 100프가 나오거나 99프로의 높은 이용률은 보여주고 TWB의 제주-인천 6월이 이용률이 29.1프로 ABL 제주-인천 3월 31.8, KAL 제주-인천 7월 34.1로 상당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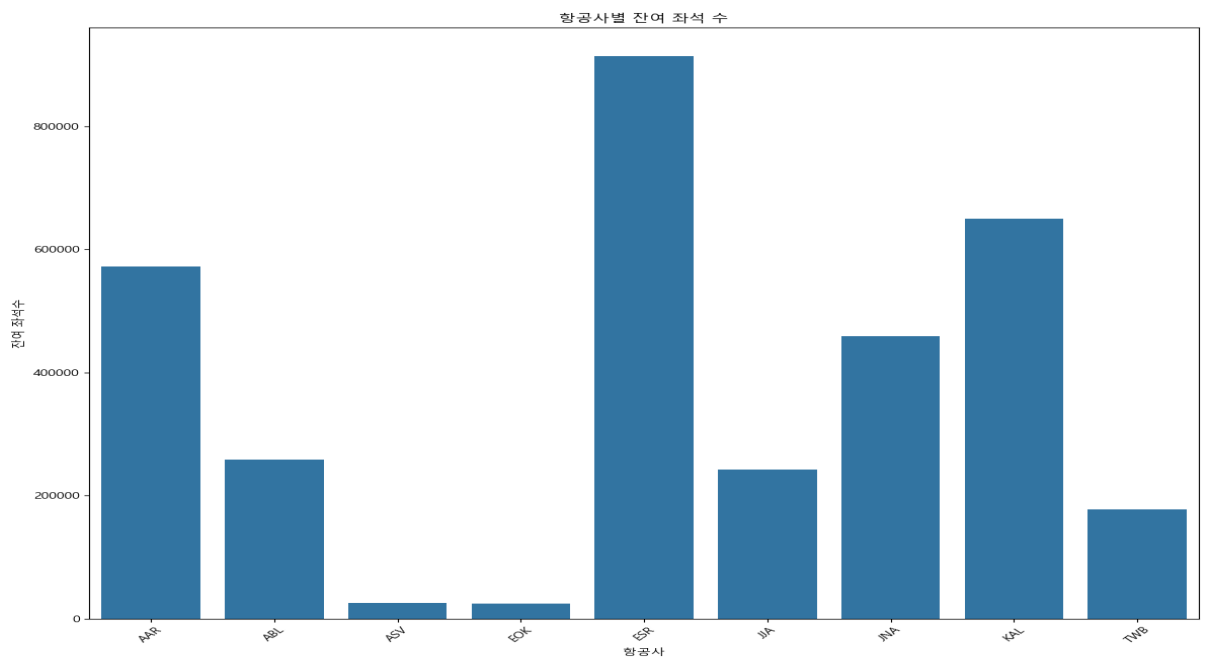
### 3. 어떤 항공사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이용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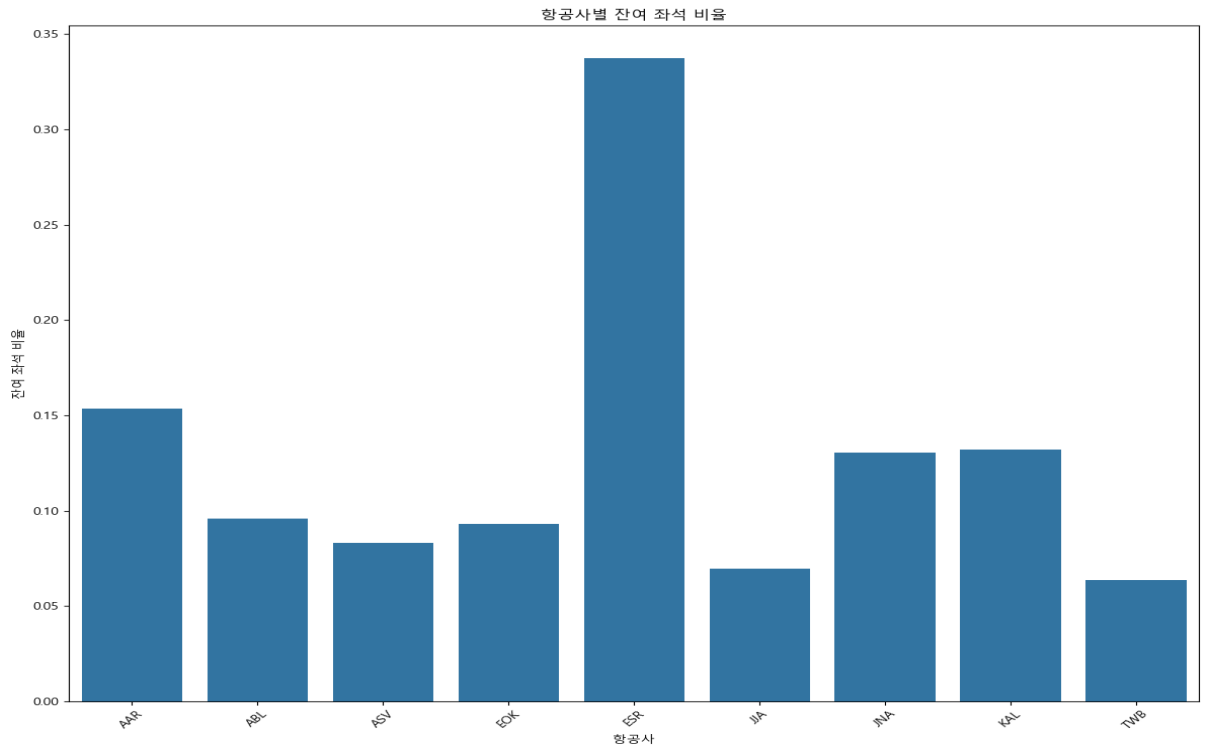


KAL(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로 보이는 반면 EOK(에어로케이) 와 ASV(에어서울)은 대한항공과 20 배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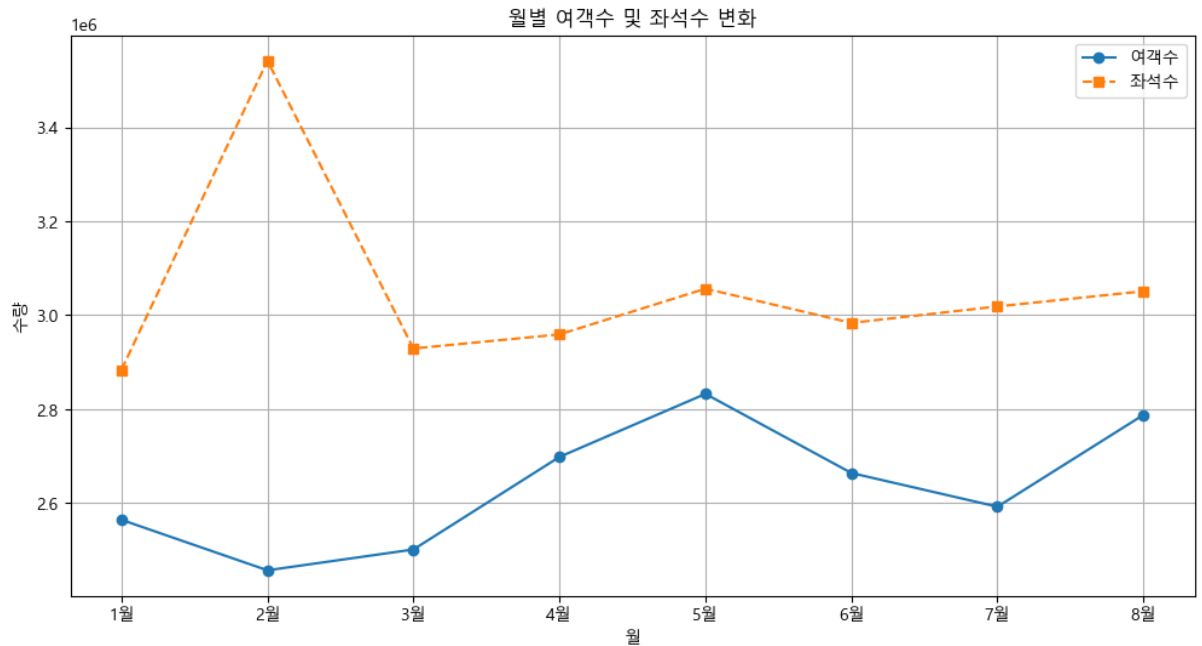


하지만 이용률은 TWB(티웨이 항공)이 가장 높게 보이지만 나머지 8개의 항공사 또한 최대 9프로로 차이 없는걸로 보이지만 ESR(이스타항공)은 티웨이 항공과 거의 30프로로 가장 낮은 이용률은 66프로가 보인다.





가장 낮은 이용률은 보이던 ESR(이스타항공)이 남은 좌석/ 전체 좌석으로 한 남은 좌석 비율이 33프로인 91만 좌석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남은 좌석과 가장 높은 비율로 좌석이 남는 것으로 보이고 TWB(티웨이항공)와 JJA(제주항공)가 가장 남는 좌석의 비율도 6퍼 정도로 가장 적고 좌석수는 EOK랑 ASV가 2만석 정도로 가장 적게 남으나 전체 좌석이 다른 항공들에 비해 많이 적으므로 TWB와 JJA가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다.



이 그래프를 보아 2월에 많은 좌석수에 비해 가장 적은 여객수가 보이고 5월이 가장 적은 차이가 보인다.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이스타 항공에서는 가장 많은 좌석을 남기는 것으로 이벤트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좌석을 팔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좌석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으며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은 남는 좌석의 비율이 적으므로 좌석이나 항공편들을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 월별로 한 그래프에는 2월에 108만 좌석으로 가장 많은 좌석이 남는 것으로 보아 항공편을 줄이는게 좋아보이고 5월, 4월, 8월에는 남는 좌석이 가장 적고 그에 비해 여행을 가는 사람은 가장 많으므로 마케팅이나 항공쪽에 광고를 집중하면 좋은 효과가 보일것으로 생각한다.